

제8회 총회·대표회장에 권태진 목사

한국기독교연합, 위기는 기회 ... 화합·연합·통합 앞장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은 지난 12월 4일 오전 11시 군포제일교회 2층 비전홀에서 제8회 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에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를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하고 대표회장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상임회장을 3인 이하로 하는 법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00여 명의 총회대의원과 참관인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총회에서 제7회기 상임회장 권태진 목사가 제8대 대표회장으로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되었다.

제8대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96회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박사, 루이지애나 뱀티스트대 명예철학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 명예신학박사이다.

한정중 제30회 대표회장, 성신클럽 제18대 회장, 군포시시도교연합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사단법인 성민원 이사장, 경기북지



뉴스 발행인, 한국교회 종교인국제대책 TF 팀 위원장, 한기연 상임회장과 한국교회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군포제일교회를 개척해 만40년 간 시무해 왔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소견 발표에서 “한국교회 뿐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하고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개혁과 삶의 기준인 성경말씀이

있기 때문이며, 교회사회 관점에서 위기는 항상 기회가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하나되는 데 앞장 설 것과, 한기연이 한국교회와 국가, 사회를 선도함으로써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연합기관으로 소임을 다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향후 한기중 한정중 등 과 긴밀한 정책적 연대를 통한 대사회 대정부 정책활동을 시사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36회 정기총회 성료

대표회장에 송태섭 목사, 상임회장에 김수음 목사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지난 11월 30일 총 88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회장에 송태섭 목사를, 상임회장에 김수음 목사를 선출하고 한 회기를 담당할 임원 및 상임위원장을 인준했다.

그리고 제36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단독 후보인 대표회장 후보 송태섭 목사에게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대표회장을 추대하여 선출하였다.

이어 상임회장 선거에 대하여 전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가 박수로 추대하여 세울 것을 제안하여 총대들이 만장일치로 상임회장으로 선출 가결이 되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당선

된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상임회장 김수음 목사에게 당선증을 수여하였다.

제36회기 임원에는 공동회장으로는 회원교단 22개 총회장 부회장에 김인기 목사(합동), 이재형 목사(개혁), 차주옥 장로(통합), 최수음 장로(합동), 원형득 장로(백석대신) 등 5명, 실무임원에는 서기 이재전 목사(기장 총무), 부서기 정성영 목사(합신 총무), 회록서기 김종명 목사(백석대신 사무총장), 부회록서기 강동규 목사(개혁선교 총무), 회계 양성수 장로(합동), 부회계 김종무 장로(고신), 총무 김고현 목사(보수 총무), 협동총무 이영한 목사(고신 사무총장), 김영득 목사(고려개혁 총무), 김명찬 목사(한영 사무총장)이 선출되었다. 감사에는 위원장에 최우식 목사(합동), 위원으로는 최정봉 목사(개혁총연), 안옥섭 장로(통합)가 임명되었다.

(사)한기지협, ‘미담(米談) 캠페인’ 전개

국민의 건강 지키고 농촌·농민 살려야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진목 목사)이하 한기지협)가 우리 민족의 기반산업인 농업이 근래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에 크나큰 우려를 표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는 ‘미담(米談)’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한기지협의 ‘미담’ 캠페인은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눈미’ (쌀눈이 달린 쌀)의 소비를 권장하며, 기름지고 서구화된 식단으로 병들어 가는 국민들의 건강을 회복하겠다는 다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기지협은 지난 11월 29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미담 캠페인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눈미사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김태환)와 MOU를 체결했다.

이날 미담 캠페인의 홍보대사에 임명된 김태환 상임대표는 “미담캠페인은 예국된

백미 문화를 건강한 눈미 문화로 바꾸자는 취지다. 눈미는 현미의 영양과 백미의 맛을 갖춘 건강한 식재료다”라면서 “한배금액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전국 방방곡곡에 무궁화 나무를 심도록 할 것이다. 오늘 기도회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300명의 미담캠페인 홍보대사와 1만 명의 홍보위원이 전 세계를 무대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기지협도 호소문을 통해 국민들이 ‘눈미’를 주식으로 선택해 줄 것과 초종교 급식에서 눈미를 사용할 것, 한국교회가 미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줄 것 등을 호소했다.

대표회장 신진목 목사는 “농업은 우리 민족의 근본이며, 쌀은 우리 건강의 중심이다”라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을 백미에서 눈미로 바꾸는 것은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건전한 목회’, ‘건강한 교회’ 세우기 전력

미래목회포럼, 제15회 정기총회 대표에 김봉준 목사

미래목회포럼 제15회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6일(목) 오전 11시 그랜드엠베서더호텔 19층 오키드룸에서 열려 대표에 김봉준 목사(이흥길사랑교회)와 이사장에 정성진 목사를 연임시키고, 정관을 개정하는 등 건전

한 목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총회는 대표회장 김봉준 목사의 인도로 이동규 목사의 회원점명, 박경배 목사의 개회기도, 주서택 목사의 정기이사회 결



의 및 정관개정안 보고, 2018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 회계보고, 15회기 대표 및 임원 인준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총회에서는 15회기 이사장에 정성진 목사(여북한빛광성교회)와 대표에 김봉준 목사를 연임하기로 하고, 부대표에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와 김권수 목사(동신교회), 포럼회장에 김대동 목사(분당구미교회), 서기에 이동규 목사, 회계에 임영분 목사(명화교회)를 세웠다.

이울러 언론미디어본부장에 고정원 장로, 인권본부장에 오정호 목사(세로남교회), 본질회복운동본부장에 이상대 목사(서광성결교회), 다음세대운동본부장에 고정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미래전략기획본부장에 이동규 목사, 공공정책본부장에 김희수 목사(성광교회)를 각각 선임했다.

미래목회포럼 김봉준대표, 연세특별공로상 수상

21대 동창회장과 대학원개원 50주년 행사준비위원장직 맡아 헌신

미래목회포럼 김봉준 대표(이흥길사랑교회 담임목사)가 ‘2018 연세특별공로상’을 받았다.

3일 연세대학교 알렌관 무학홀에서 열린 ‘2018년도 연세교육인의 밤’에 수상자로 참석한 김봉준 목사는 수상자들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전했다.

김 목사는 “1회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상을 받는 것이 송구스럽다”며 “우리 후배님들께서도 힘을 내시고 학교발전을 위해서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런 시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수상결정에 따라 송용은 동창회장, 정희모 교육대학원장



의 추천으로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명의로 2018연세특별공로상패와 함께 수급메달이 수여됐다. 수상 배경으로는 ‘위 동문은 본회 제 21대 동창회장과 모교 대학원개원 50주년 행사준비위원장직을 맡아 헌신하였으며, 아

이흥길사랑교회는 복음전파와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지역문화센터의 기능과 역할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동문들의 뜻을 모아 이 상을 드립니다’라고 상패에 명시했다.

한기부 ‘제50대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임준식 대표회장 “6만 교회의 거룩한 부흥 위해 헌신할 것”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대표회장 임준식 목사, 이하 한기부)는 12월 3일 서울 목동 목양교회(담임목사 임준식)에서 ‘제50대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제50대 한기부 대표회장에 취임한 임준식 목사는 서울장신대와 숭실대 대학원 및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장신대 총동문회 회장, 한국장로교연합회 대표회장, 예장통합 통일선교대학원 회장, 리벤첼 이사장, 솔라티언 구소 이사장,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울장신대 겸임교수를 역임한 인사로 한계 목양교회를 담임하며 국제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 대표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임준식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한기부가 50년 회년을 맞이하는 이때 대표회장으로 섬길 수 있게 돼 감사하다. 나는 주님을 받받아 낮아짐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순종하고 교회와 사회를 섬기며 6만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선한 일꾼이 되겠다. ‘성령의 불길을 세계로!’라

는 표어를 따라 이 땅에 다시금 성령의 강한 역사를 드러내며 한국교회의 뜨거운 열정을 온 세계에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회장을 이임한 윤보환 목사는 한 해 동안 함께 수고해준 임원들에게 고맙은 마음을 전하며 신임 대표회장 임준식 목사를 중심으로 한기부가 더 크고 놀라운 사역을 이뤄가길 기원했다.

대한성서공회, 제130회 정기이사회 개최

올 한해 국내·외 총 6,584,503부 성서보급

대한성서공회 제130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1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부 기도회에서는 서기형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가 ‘성경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권의현 사장의 사장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다. 안건으로는 최규완 장로가 이사로, 정명철 목사가 감사로 보선되었으며, 교단대표로 이현식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장만희 사관(구세군대한본영),

김용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신상현 목사(예장 고신)가 선임되었다. 찬성회원 대표로는 김현배 목사, 손인웅 목사, 정하봉 목사기, 감사로는 송영환 장로가 선임되었고, (주)바이블코리아 이사에는 손인웅 목사가 선임되었고, 김호용 상임이사가 재선임 되었다.

권의현 사장은 사업보고를 통해 “최근 용지를 비롯한 원자재와 급격한 임금 인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6,059,379부의 해외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며, 지난 2012년부터 금년 까지 7년 동안 계속해서, 6백만 부 이상의 해외 성서 보급 실적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독교한국신문 창간 6주년 감사예배 드려

한국교회의 연합과 한민족 화해 분위기 조성 다짐

기독교한국신문(발행인 및 편집국장 유달상 장로)은 창간 6주년 감사예배를 지난 11월 28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드리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한민족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키로 했다.

이날 예배는 하태영 목사(삼일교회)의 인도로 강재형 목사(예장 해와함동 부총회장)의 기도와 정서영 목사(세기총 대표회장)의 ‘오직 그리스도’ (행 4:12-14)란 제하의 설교 순서로 드러났다.

상임논설위원 정서영 목사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책 있을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을 못잘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면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성장 속도만큼 무너지는 속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우려했다.

특히 정 목사는 “진리에 서서 한국교회와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바쁜 성경 진리에 서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성장시키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상임논설위원 김진호 목사(기감 전 권묵)와 이규희 목사(예장 우리총회 총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황인찬 목사(예장 개혁 증경총회장)와 김효중 목사(예장 호연 총회장), 김택기 목사(그교회 증경총회장), 김정숙 목사(예장 열린총회), 임우성 목사(WAIC 사무총장), 이형규 장로(금란출판사 대표), 최귀수 목사(한기연 사무총장), 신병식 목사(한교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세기총 사무총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김진호 목사는 “비록 짧은 역사를 가진 신문이지만, 다른 어떠한 신문 못지않게 잘 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정말 읽을거리가 있는 신문, 기독교를 대변하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최애자 장로장립 및 권사 안수 임직예배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최정식 목사)는 지난 11월 25일(주일) 오후 3시 예수교대한하나님의 성회 광주지방회 회장으로 수교하는 최정식 목사의 교회(순복음복된교회)에서 교계의 여러 인사를 초청해 장로 및 권사임직식을 가졌다.

매월 둘째 주에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보기도회를 갖기에 불과 며칠 전 순복음광산목양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던 터라 더더욱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임직식을 가질 수 있었다.

이날 1부 경건예배는 총무 조은주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이영애 목사의 기도와 재무 박우진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 증경회장 주덕영 목사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제목의 설교, 회계 배영래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는 순복음복된교회 담임 목사인 최정식 목사의 집례로 최애자 장로의 장로



장립식이 있었고, 3부는 4명의 권사(박복자 권사, 장복향 권사, 윤금희 권사, 김연순 권사)의 안수식이 있었는데 이날 권면에는 지방회 증경회장 조원재 목사와 지방회 증경회장 김정식 목사, 축사는 서기 조길수 목사, 김해상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가 전했으며, 답사는 최애자 장로의

감동어린 고백으로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가 있었다.

이후 교단직전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축도로 임직예배를 마치고 간단한 기념품과 만찬을 나누고 또 한 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구나'하는 감동을 안고 아쉬운 작별을 했다.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11월 29일(목) 오전 11시 녹동순복음교회의 지교회인 순복음산돌교회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유은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이태우 목사(새여수은혜와진리교회)의 기도 이어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가 고전 4:10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주의 종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전하였다.

특히 30여 년 전 하나님의 은혜와 섬리로 개척된 산돌교회의 역사를 소개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목회 사역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축복하였다.

이어서 교단총회와 교단신하 지방회와 모든 교회를 위해, 전라지방회 교회와 목회자 가족들을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단과 교회가 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였다.

2부 월례회에서는 각 부서의 보고를 서면으로 통과하고 새여수은혜와진리교회의 임

직예배에 관하여 처리한 후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어서 겨울 햇살이 비추는 바닷가의 한 펜션에서 녹동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풍성한 점심과 맛있는 점심사와 간식을 함께 하고 회원들 간에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피곤한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 간구

호남지방회

호남지방회(회장 서세드로 목사)는 지난 12월 10일(월) 송죽교회(담임 조남연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현기봉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민순복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홍광희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서세드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서 목사는 마 11:25-30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다"고 전했다. 이어 증경회장 왕상엽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 각종 회무 처리를 마친 후에는 송죽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애찬을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사도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될 것’ 다짐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홍현철 목사)는 지난 11월 29일(목) 순복음갈릴리교회(담임 정영철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사회로 안병섭 목사(순복음창성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홍현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철 목사(은혜충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홍 목사는 행 26:24-25, 고후 5:13-14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도바울이 예수에 미치고 복음사역에 미친 것과 같이 우리도 주의 종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로서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 후 회계 박영욱 목사(순복음참좋은교회)의 헌금기도와 홍현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1부 예배를 마친 후 2부 월례회에서는 각종 회무처리와 순복음갈릴리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차를 마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제11차 조찬기도회

“성평등정책 그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돼...”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조찬기도회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지난 11월 22일(목) 오전 7시 동천교회(담임 박귀환 목사)에서 2018년도 제11차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총창기독인들과 회원들이 단합하여 총난민 권조례안을 폐지시키게 된 것을 치하하고, 더욱 힘을 모아 그릇된 성평등정책을 폐지시키자고 강조했다. 또,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1부 예배는 공동회장 박노선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김성준 목사의 대표기도,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이시다'라는 제목의 설교, 고문 김소음 감독의 격려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박귀환 목사는 마 16:13-2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생활화하며 불의한 준동을 막고 진리를 시수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2부 보고회는 상임회장 조이철 목사의 사회로 자문위원 이명수 국회위원이 국정활동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장기승 시의원의 시정활동보고 후에는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이기인 목사와 바른인권위원

회 위원장 정현원 목사가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3부 기도회는 상임회장 임용석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황기식 목사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상임회장 이승수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동회장 은재현 목사가 '하기연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가 '성시화를 위하여' 후원회 박해서 장로가 '성평등정책 반대를 위하여' 각각 기도를 인도하고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의 인사말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아동학대 예방 염서 공모전

지난 11월 21일(수) 전주국립박물관 강당에서 '2018 아동학대 예방 염서 공모전 시상식'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정장 문정훈) 노사, 전라북도, 전북지방경찰청, 군내 이비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최로 개최됐다.

공모전 결과 교단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남원중앙교회 담임)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런 염서 공모전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동학대 예방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든다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또 아동학대가 단순한 가정 내, 가족 간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널리 알릴으로써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연히 이뤄져 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데도 주안점을 뒀다.

한편,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 그 주간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기념식과 주 간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짐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김영준 목사)는 지난 11월 20일(화) 오전 11시 상주 반석교회(담임 정인철 목사)에서 11월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정진학 목사(태전시리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도명수 목사(동해안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와 서기 이항구 목사(주전왕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온산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신 6:5 말씀을 본문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



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회계 허만운 목사(순복음상산교회)의 헌금기도와 증경지방회장 강태진 목사(한

동성곡교회)의 헌금축복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의 인도로 서기의 회원점명과 회계의 재무 및 회계보고를 받고 기타 인건과 종교동부 및 청년동계수련회에 대해 회의하고 증경지방회장 진영갑 목사(주전왕교회)의 기도도 모든 순서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후 상주반석교회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고 상주 분장대부근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관람하며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하였다.



2018년도 송년회 모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탁정진 목사)는 지난 12월 8일(토)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소재한 '팔미 낙지한마리 수제비' 식당에서 지방회 회원 및 회원 가족들과 함께 2018년 송년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식사 전 예배를 통해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행해 주신 일들에 감사 기도를 드렸으며, 각자 준비한 나눔의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애찬 시간을 가지며 사

람의 교제를 나누었다.

■ 생명의 말씀 ■

구원의 붉은 줄

(수 2:1-7)



정석현 목사

· 경기남지방회장
· 순복음평강교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 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여인입니다. 성경은 그의 행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히 11:31)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약 2:25)

라합은 여리고 성문 앞에서 주막집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인가부터 주막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의 소식이었습니니다. 점점 그 소식은 현실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족속들이 정복 당해 죽임을 당하고, 아모리 왕 시혼과 비산 왕 옥이 전멸 당하고, 이제 며칠 후면 이 여리고성을 치러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소식에 여리고의 왕도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비하여 온 성사람들과 더불어 어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성을 탐지하고 오라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은 여리고 성에 잠입하여 주막집으로 들어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수상한 사람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즉시 왕에게 보고하였고, 왕은 군사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어 당장 그 첩자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삼대로 덮어서 숨겨두고, 지혜로운 거짓으로 군사들을 따돌렸습니다. 거짓이 들롱 나면 죽을 줄 알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말했습니다.(수 2:9-11)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운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라고 했다. 사실 라합이 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라합에게는 구원을 알리는 복음의 소식이었기에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음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복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듣든지,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는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서는 구원의 복음이 되었지만, 거부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에게는 간담을 녹이는 두려움 속에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구원의 증표를 남겨주었습니다.(수 2:18-20) 라합은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보낸 다음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았습니다.(수 2:21) 라합은 우선 다른 일부터 정리하고 시간이 되면 나중에 찾아야겠다 하지 않고 즉시 행했습니다. 그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없었고, 붉은 줄은 자신과 온 가족을 살리는 생명을 이었기 때문이었

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들이 그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방주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욱 백세 되던 해 물째 달 곧 그달 열이렛날이라 그 날에 큰 갈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창 7:10-1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도 피를 바르고 집안에 있으라 하셨습니다.(출 12:13, 22)

며칠 후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그 성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명령하였습니다.(수 6:22)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의 날에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여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라합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의 여인 라합이 붉은 줄이 달린 집안에 있을 때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의 십자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

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라합의 붉은 줄이 그를 죽음에서 건지는 언약의 보증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그 붉은 줄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 생명줄이며 구원의 줄이었습니다.

성경은 죄악된 인간이 죄를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기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행 4:12)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요 14:6)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일터에도 붉은 줄의 증표를 달아 그 위에 어떤 양의 보혈이 흘러 내리게 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하나님은 가장 비천하고 가련한 라합을 통해 믿음의 명분기를 이루셨습니다. 유다 지파인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뜻을 통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보혈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과해야 하며, 다시는 종교 탄압을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해야 한다. 국제오픈도아선교회 발표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는 국가로, 지난 17년 동안 부동의 1위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수천 개의 교회를 없앴으며, 신앙에 대하여 박해하고, 종교를 전시물로 만들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대하여 인정하고, 누우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그를 환영한다면, 이는 신앙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교계에서도 일부 지도자들이 분별없는 발언을 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것은 맞지만, 김정은 집단의 종교 박해 행태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김정은을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배도(背道)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기독교를 박멸하는 집단은 원수가 아니라 마귀이다. 마귀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성경에서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를 마귀의 자식’으로 표현하고 있다(행 13:10) 그러므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무조건적 담방은 환영하지 못한다.

동 정

영풍회 대표회장 강홍규 목사



한국기독교영풍회 제36대 대표회장 강홍규 목사 취임감사예배가 지난 11월 23일(금) 은혜교회에서 드려졌다. 강홍규

목사는 취임 인사말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국교회를 깨우는 영풍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영풍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마르퀴즈 평생공로상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정보통신학부 임종수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가 선정하는 ‘2018 엘버트 벨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공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선정해 공로상을 수여한다.

한직선 대표회장 박은규 장로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한직선)는 지난 12월 8일(토) 서울 종로구 사직로길 종교교회에서 창립 37주년 감사예배 및 제 38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대표회장

에 박은규 장로를 선출했다. 박 대표회장은 대전시청선교회장 겸 대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장을 역임했다.

미혼 크리스천 위한 결혼세미나



청년 사역단체인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대표 김성준 목사)은 오는 12월 16일(주일) 오후 5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서울희망교회에서 ‘결혼 세미나’를 개강한다. 이 세미나는 미혼 크리스천의 준비된 만남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불신자와 결혼은 가능한 것인가’ ‘올바른 이성교제’ 등을 주제로 12주 동안 진행된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 ‘무조건 환영’ 못한다

최근 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문 대통령도 최근 G20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회견을 통하여 ‘김 위원장이 답방하는 것이 의미가 크며,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였다.

물론, 평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수단으로 김 위원장의 답방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를 위한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진정성이 있느냐하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환영을 받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는 천명해야 한다. 하나는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에 대한 분명한 언급과 이에 대하여 역사와 민족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

지난 11월 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

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북한 인권유린 상황을 ICC(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올린 바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내리5년째이다.

이 내용에는 북한 내에서 광범위하게, 고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강간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법치의 결여, 정치/종교적 이념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 노동 등 인권 유린 행태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국제인권 단체 등도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북제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이고 인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라울로 프랑스 북한인권위원장은 ‘북한 인권은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일

링필드 학살 사건으로 유명한) 정권 이후 최악의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도 최근 한 세미나에서 ‘북제인 정권의 북한인권 활동 방해는 노골적이고 광범위하다면서, 북한인권 재단들의 조직을 거의 해체시키고, 북한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끊고, 정보유입을 막고 있으며, 평화라는 미명하에 지상 최악의 반인권적인 김정은 전체주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한반도인권과평화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김정은 답방이 가시화되고 남북 정상 3차례 회담을 가졌으나, 아직도 북한의 인권이나 국군포로 송환, 납북자 생사확인,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에 대하여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는데, 이는 현행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담방을 응

답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와 탈북민들에 의하여 날날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평화 회담과 함께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전된 태도가 담보되어야, 비로소 실제적인 남북 평화 회담이 진정으로 그 의미를 갖게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담방하게 된다면, 우선은 북한인권 상황의 실체를 솔직히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엄연히 존재하는 인권 침해 실태를 외면한 채, 한국을 찾는 것은 한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세계를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응답될 수 없다.

아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억압한 인권침해 국가의 수장을, 평화를 위한 회담장의 지도자로 받아들이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기독교 박해에 대한 실상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9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8. 8. 31(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8. 9. 06(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8. 9. 20(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8. 8. 31(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19. 2. 11(월)~12(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임웅재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신재영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목양강좌/성경으로 현대신학사상 분별하기 ㉓

“성경에서 출발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경으로 간다”

“모든 실체는 불가항력적이며 지속적인 변증론에 의해 끊임없이 파괴되고 재창조를 겪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형태의 전통적 존재들은 성립할 수 없으며,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인 절대 존재도 있을 수 없다. 어느 한 순간에 신(神)이 된 자는 변증론에 의해 곧 자신의 파멸을 원하게 된다.”

사신 신학자들은 루돌프 볼트만과 디트리히 본회퍼로부터 사상을 빌려왔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볼트만”으로부터 그들은 성경이 신화라는 결론을 끌어왔으며 “본회퍼”로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이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왔다.

(1) 사신 신학의 교리적 주장

사신 신학은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공통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들은 칸트와 리츨의 철학에 기초하여 신학을 전개하였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거부하였다. 또한 사신 신학자들은 “신은 죽었다”고 외친 니체로부터 많은 것을 빌려왔다. 성서적인 면에서, 그들은 성경을 신화로 본 볼트만의 접근법을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경의 기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하인만 같은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아니라 일개 인간으로 보았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과 세상에 관한 선포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적 의미의 죄를 무시하였으므로,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해결책도 무시하였다. 그 해결책과 기독교의 핵심은 세속화하였다. 즉, 세상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 과학과 기술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되 하나님은 고려에 두지 않는다. 그들의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다.

5. 사회주의신학

최근에 발전된 기독교 신앙의 혁명적 사회주의 측면을 강조하는 신학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존재한다.

1) 소망의 신학

윌트겐 몰트만(1926년 -)은 뒤빙겐 대학교에서, 몰트만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인 에른스트 블로흐(1885년-1977년)를 만났는데, 블로흐는 몰트만의 신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몰트만 신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하나님은 시간 과정의 일부로서, 미래를 향해 움직이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계시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미래에 성취될 것이다.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은 종말론적이며 미래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래에 있을 일반적 부활의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빈 무덤에서 부터 부활을 보기 보다는 미래를 향하여 보아야 한다고 볼트만은 주장한다. 미래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당화시켜 준다. 또한 인간도 미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미래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펼쳐지는 역사의 관점에서만 해될 수 있다.” 해결책은 인간이 하나님과 연관을 맺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성이 멸시받고 상처받는 곳이면 어디든지 모습을 드러내신다. 몰트만은 이를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부른다.

이 십자가의 신학에서 인간은 삶의 도전을 현재에 대한 미래 순간의 침투로 받아들임으로써 십자가의 일익을 담당한다. 인간은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종족, 계급, 지위, 국가 교회” 등은 도말되어야 한다.

교회는 미래를 구체화할 힘을 갖고 있으며, 사회에서 그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적극 전파해야 한다. 교회는 “개인적 구원”의 차원을 넘어 상이한 백성들 간에 놓인 모든 장벽과 장애물을 헐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 혹은 민족 간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헐고 화해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혁명은 교회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2) 해방 신학

(1) 해방 신학의 역사적 발전

해방 신학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의 사회적/경제적 관심을 신학과 접목시키려는 운동 으로서, 특히 중남미 지역에서 발달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개별적으로는 “흑인 신학”이라 불린다), 여성(개별적으로는 “여성 신학”이라 불린다) 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이 해방 신학에 기여한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이 운동은 임마누엘 칸트(1724년-1804년, 하나님의 계시보다 이성을 강조)와 게오르크 헤겔 1770년-1831년, 사회의 변혁이 정반함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 특히 칼 마르크스(1818년-1883년, 계급

적 구분과 장벽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사회변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의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는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은 심한 압제를 받아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침투하기 쉬운 상황이다.

이 운동은 미래의 소망을 성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혁명을 주장한 윌트겐 몰트만의 소망의 신학에도 영향을 받았다. 몰트만 자신의 신학도 칼 마르크스의 견해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운동은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 주도되었다. 해방주의적 경향을 담고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년 -1965년) 이후, 많은 시제들이 라틴 아메리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방 신학을 채택하였다.

이 운동은 국민들이 부유한 지주들과 독재자들에게 의해 억압을 받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났다. 그곳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엄청났다.

신학자들은 중남미가 식민지화된 그날부터 국민들에 대한 억압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해방 신학의 범주에서 볼 때, 기독교 신학과 사회적/정치적 투쟁을 진정으로 연결시키려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기독교 신학을 벗어 버린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남미의 해방 운동은 전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다.

(2) 해방 신학의 요약과 평가

해방 신학운동은 매우 다양한 입장들을 포함하는데, 어떤 이들은 좀 더 좌익적이고, 어떤 이들은 좀 더 온건하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해방 신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 해방 신학자들은 성경의 본래의 의미 대신 이차적 의미를 더 중요시한다.

예를 들어, 제임스 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사람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육체적 압제로부터의 구원과 연관시킨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부활의 전통적 의미는 무시된다.

- 해방 신학에서는 인간의 죄악성과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영적 구세주의 필요성을 무시한

다. 죄로부터 해방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해방의 본질은 정치적인 것이다. 실제로 해방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불의한 압제자들을 몰아냄으로써 죄로부터 그 압제자들을 구원해 준다고 여긴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표준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사회적 불의이다.

- 해방 신학자들이 언급하는 소망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개념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그 소망은 윌트겐 몰트만의 견해와 같이 현재의 추진적 노력(종종 혁명적 수단을 포함한다)을 통해 미래의 소망을 실현하는 것이다.

- 구스타보 구리에레초와 같은 해방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신학은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가 아니라, 유동적이며 계속 변화하는 것으로, 사회적 변화와 연관을 맺고 있다. 해방 신학은 마르크스적 사회주의에 “기독교의 겉질”을 씌운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해방 신학은 정통적,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인간, 죄, 구원 등의 개념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 개념들을 재해석한다.

3) 민중신학

민중신학은 해방신학과 꼭 같은 구조를 가진 한국적 해방신학, 혹은 해방신학의 한국화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공통점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학의 출발점이 꼭 같다. 해방신학이 이론이 아니라 행동에서 출발함 같이 민중신학도 그렇다.

- 투쟁으로서의 신학을 말하는 점에서 같다.

-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형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의 범례로만 본다는 점에서 해방신학과 맥을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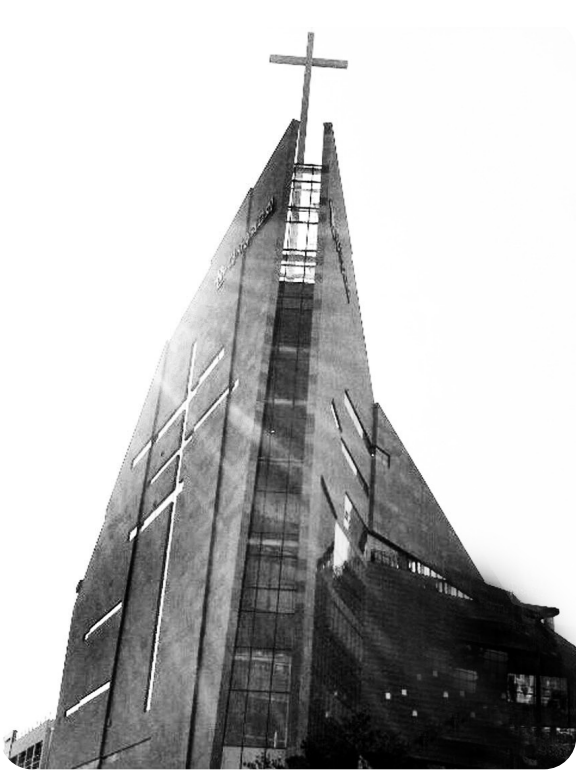
- 신관이나 기독교인이 서로 같다. 해방신학이 초월적 신관을 부인하고 인간 속에 내재하는 인간신을 말하는 데, 민중신학도 그렇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민중신학에서는 민중이 바로 신(神)인 것이다.

- 따라서 민중신학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고 본회파에서 몰트만 정치신학, 해방신학으로 이어지는 급진주의신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민중신학의 신관

엄밀한 의미에서 민중신학에는 신관이 없다. 왜냐하면 민중신학의 관심의 대상이 전통적 기독교의 신(神)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민중신학의 관심의 대상은 초월적 신이 아니라 민중이다. 지금까지는 신을 존재론적, 형이상학적, 그리고 교리적으로 생각해왔으나 이제는 역사와 인간 안에서 활동하는 역사의 신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중신학에서는 인간의 이름과 처절 속에도 모든 상처를 고쳐주며 찾아주시는 은혜스런 하나님에 대해



민중신학은 민중교회론을 말한다.

즉 민중신학은 해방신학과 같이 교회를 민중을 위한

사회변혁의 전위대로 간주하고,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보다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한다.

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고 단지 “민중신학은 민중이 가진 순수성이 마침내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중신학은 신이 없다. 민중만 존재하는 신학을 이야기하는 “신학운동이 아닌 사회운동”이다.

(2) 민중신학의 성경해석

민중신학의 성경사용은 매우 경향적이고 선택적이다. 그것은 성경을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또는 사회 경제사적이며, 문화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 여기서 사회 경제사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신학과 결정적인 결별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중신학은 성경 전체의 진리에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는 성경 구절들을 “성경적 전제”라고 제시한다. 그들이 편애하는 성경부분은 출애굽기, 그 중에서 해방의 사실과 계약법전 등 그 예언자들의 사회정의에 대한 부르짖음, 신약에서 마가복음,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등이다.

따라서 성경의 역사적 사건과 진술을 신의 계시적 자기표현으로 보기보다는 사회 경제사적 차지에서 발생한 민중운동의 양상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거나 참고서로 본다. 그러므로 민중신학은 성경이 절대적인 표준이 됨을 분명히 거부한다.

(3) 민중신학의 예수관

민중 신학론자들의 예수관은 “예수는 민중이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안병무는 “예수는 출신으로나 형태상으로 한 민중이다”고 말하며, 또한 “예수의 삶의 장을 갈릴리에서 도시에 간 기록은 없고 농촌이 그의

장이다”고 말함으로 예수는 농촌 사람만을 위하여 온 것처럼 묘사한다. 더구나 “민중과 더불어 예수가 있는 곳에 민중이, 민중이 있는 곳에 예수가 있다. 이 수난의 예수는 집단의 표상이다”고 말한다. “예수는 민중이다”라는 말은 “민중은 곧 예수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남동은 이렇게 논증한다. “민중이 자각한 사람의 존재로 출현할 때에는 말하자면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4) 민중신학의 구원관

전통적인 신학에서 구원은 인간의 죄와 회개를 반드시 전제한 개념이다.

그러나 민중신학은 죄인을 종교적 의미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잘못을 범한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고, 사회 경제사적으로 억울함을 당한 자, 즉 “범죄 당한 자”로 이해한다.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붙이는 딱지가 죄라고 풀이한다. 그러므로 민중신학은 민중의 서러움과 한(恨)을 신학의 틀과 지평으로 삼으며, 교회의 사명이란 민중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필연적인 사실은 죄인이 회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죄인은 부끄러운자가 아니라 당당한 자로

나선다.

민중신학은 죄의 회개를 통한 삼림의 치유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구원 대신에 “한 풀이”를 통한 인간성의 실현을 말하며, 그것을 구원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시각 때문에 민중신학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를 의지하는 타력의 구원 대신에 민중이 구원의 주체가 되는 자력의 구원을 말한다.

(5) 십자가와 부활

민중신학은 복음의 기본 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민중 해방운동으로 취급한다. 서남동은 예수의 십자가 형제(弟)도 정치적 동기에서 발생한 정치적 사건으로 보고, 그가 십자가형을 받은 것은 민중을 수탈하는 에루살렘 지배체제에 결연히 정면으로 도전한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고

6. 보수주의 신학

1)복음주의

복음주의(福音主義, Evangelicalism)는 역사적으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루터교회와 개혁신교회를 중심으로 개신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었다. 복음주의라고 부른 것은, 신약 성경에 밝히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 대신에 성례(聖禮)나 신자의 공로적 선행을 가르쳐왔던 로마 가톨릭과 구별하기 위해서이었다.

이와 같이, 복음주의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입장, 곧 성경적 기독교이다.

그러나 현대자유주의 신학들이 역사적 개신교들 속에 들어와 교회들을 부패시키고 변질시켰던 20세기 중엽 이후, 복음주의 안에서 두 부류의 진영이 대두되었다.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자유주의화된 교회들에 대해 포용적인 신(新)복음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을 철저히 반대하며 자유주의 교회들과의 교제의 단절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이다

2) 근본주의

근본주의자들은 정통 개신교 신앙을 고수하는 복음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후에 모더니즘(현대주의와 자유주의)과의 투쟁과정에서 모더니스트[현대주의자]들과 결별하기 위해 분리를 택하기 시작했다. 근본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을 이단이라 부른다.

분리의 대상들 : 첫째 불신자들이며(고후 6:14-18), 둘째 이단자들이며(롬 16:17, 18; 딤후 3:10; 요이 7-11; 유 3), 셋째 회개치 않는 범죄자들이며(고전 5:11-13), 넷째 고의적 불순종자들이다(살후 3:6, 14-15).

분리의 이유 : 첫째로 교회가 바른 신앙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교회의 본질 때문에, 둘째로 교회가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교회의 순결성 때문에(엡 5:26, 27), 그리고 셋째로 악의 전염성 때문이다. 적은 누룩은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전 5:6).

3) 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자들이 모두 동일한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을 “외각의 친구들”이라 부른다.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는 이 운동을 주도하는 기관이 되어왔으며, 이 운동의 대변자(代辯者)는 크리스처니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이다.

2-1) 신근본주의

여러 해를 거치면서 근본주의의 분위기가 변화되어 왔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현대적 근본주의 운동을 가리켜 “신근본주의”라고 부른다.

전통적 근본주의는 베로로부터의 분리를 강조한 반면, 후기의 근본주의는 “2차적 분리”, 즉 자유주의자들과 유대를 맺고 있는 다른 보수주의자들과의 분리를 역설한다.

신복음주의자들이 모두 동일한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을 “외각의 친구들”이라 부른다.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는 이 운동을 주도하는 기관이 되어왔으며, 이 운동의 대변자(代辯者)는 크리스처니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이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찰스 우드브리지(Charles Woodbridge, 1902-1996)는 “신복음주의는 가장 치명적인 신학적, 도덕적 타협이다. 그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활한 공격이다.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보다 더 교묘한 위험에 직면한 적은 없다”고 평가했다. (Calvary Contender, 15 October 2001)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자인 윌리엄 라일리(W.B. Riley)는 “우리는 극단적 오펜파와 극단적 원편에 관해 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극단적으로 거짓되고 극단적으로 불순종적이며 극단적으로 위험하다고 폭로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극단적 중립이다. “중도적 사람은 20세기의 신학적 위험이다”고 하였다. 진리와 거짓[선과 악]간의 싸움에서 중립성은 덕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Calvary Contender, May 2002)

권면: 자유주의신학이라고 명명되는 현대신학이 어떻게 성경적 정통에서 벗어났는지를 배움으로서 지혜와 분별력을 얻어서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함.

- 1) 이단을 분별하여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자.
- 2) 모든 교회는 다 같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
- 3) 거짓 복음을 전하는 현대교회가 많은 배교의 시대에 살면서, 말세의 징조를 깨닫고 대비해야함.
- 4) 건전한 기독교 사적, 영화, 기타 매스컴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 양성.
- 5) 대학생활 하면서 만나는 여러 선교단체, 친목단체, 성경공부반 등에 가입여부를 결정할 때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서울서부지방회



회장 신동민 목사
시온영광교회



총무 고건구 목사
사랑의교회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김성규 목사
섬돌교회

서울남서지방회



회장 이복순 목사
진리와사랑교회



저무 신은순 목사
반석교회

서울강남지방회



회장 우성연 목사
은혜로교회



부회장 정윤기 목사
순복음가락교회



총무 이성호 목사
돌메교회



서기·저무 이현옥 목사
순복음사랑교회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김상기 목사
사랑과성령교회



부회장 임동배 목사
우리들의교회



총무 이기성 목사
새소망교회



서기 심은애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경기지방회



회장 김성연 목사
순복음영광교회



부회장 전혜서 목사
열린우리교회



총무 김은순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서기 조영진 목사
순복음부흥교회



저무 안재복 목사
순복음비전교회



회계 최균자 목사
은누리순복음교회

경기중앙지방회



회장 이은수 목사
은혜와소리교회



부회장 조광선 목사
순복음반성교회



총무 윤두환 목사
홍천순복음교회



저무 한신 목사
반포순복음교회



회계 김전순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경기남부지방회



회장 정석연 목사
안성평강교회



1부회장 백희범 목사
오성사망교회



2부회장 김남순 목사
열린우리교회



총무 서경오 목사
복있는교회



서기 김남순 목사
밝은빛교회



저무 안세상 목사
안성은혜교회



회계 표한자 목사
시냇가에있는나무교회

경기북부지방회



회장 김계문 목사
동산중앙교회



부회장 이상일 목사
천안교회



총무 최남순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저무 박수진 목사
사랑의등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이석순 목사
대구은혜와진리교회



부회장 최우현 목사
영동포은혜와진리교회



총무 이도희 목사
전원은혜와진리교회



서기 김영식 목사
안양은혜와진리교회



저무 이재복 목사
부곡은혜와진리교회



회계 양경권 목사
남양은혜와진리교회

안산시흥지방회



회장 이인규 목사
아세아순복음교회



총무 김영환 목사
새동산교회



회계 최영희 목사
예준교회



회장 탁정신 목사
온선교회



부회장 이경진 목사
다시말교회



총무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서기 유순수 목사
형기보문교회

용인지방회



회장 강희문 목사
은혜와소망교회



부회장 백경인 목사
순복음성광교회



총무 지용희 목사
새생원교회



저무 김경일 목사
기도하는교회

일산지방회



회장 이진우 목사
주인의교회



부회장 조영환 목사
일산별빛교회



총무 회계 양호철 목사
빛과성령교회



서기·저무 성수자 목사
순복음평강교회

경기북지방회



회장 강경호 목사
마음순복음교회



서기 이근수 목사
우리순복음교회



저무·회계 김경숙 목사
순복음영국전교회



서기 박수진 목사
형기보문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백인홍 목사
송도순복음교회



부회장·총무 김경근 목사
영성순복음교회



서기 정진규 목사
확신순복음교회



회계 이한수 목사
사랑순복음교회

강원동지방회



회장 정경길 목사
성지순복음교회



부회장 이정은 목사
진부제일교회



총무 최정희 목사
성광교회



서기 정주영 목사
강릉순복음교회



저무 이진우 목사
주님의요양교회



회계 박규희 목사
원주성광교회

강원서지방회



회장 박성운 목사
평강교회



부회장 정희자 목사
바울교회



총무 김재두 목사
성산은혜교회



회계 김중애 목사
군업순복음교회

대전지방회



회장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부회장 이마순 목사
한소망교회



총무 이만규 목사
좋은나무교회



서기 차재현 목사
열린별빛교회



회장 안홍규 목사
한사랑교회



부회장 김영권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저무 오수경 목사
순복음장자교회

충남지방회



회장 오일선 목사
순복음포도원교회



부회장 김순구 목사
사랑이넘치는교회



총무 전홍식 목사
순복음성기교회



서기 윤 옥 목사
성산순복음교회



저무 김영희 목사
순복음장대교회

충주지방회



회장 정익섭 목사
한소망교회



서기 김성훈 목사
충주성민교회



회계 김선경 목사
세계로교회

충서지방회



회장 윤병하 목사
한우리교회



총무·저무 이범구 목사
순복음새생교회



서기 전현배 목사
성곡순복음교회

충북지방회



회장 오병호 목사
순복음이평교회



부회장 권정식 목사
순복음늘푸른교회



총무 신홍식 목사
한일밀알교회



서기 성기찬 목사
방어진순복음교회



저무 윤복주 목사
순복음복글산교회



서기 신병설 목사
청주주사랑교회



저무 조재호 목사
창대교회



회계 민병준 목사
예경순복음교회

청남지방회



회장 윤성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부회장 각규섭 목사
화북한교회



총무 유영주 목사
열린별빛교회

충주지방회



회계 이성진 목사
(순)진주별빛교회



회장 이성식 목사
섬빛교회



부회장 권정식 목사
순복음늘푸른교회



총무 김태주 목사
순복음부산우리교회



서기 조옥금 목사
순복음빛교회



저무 김연옥 목사
영광한성교회



회계 서희순 목사
순복음비전교회

부산동지방회



회장 홍현철 목사
은혜중앙교회



부회장 정영진 목사
순복음갈릴리교회



총무 조정화 목사
순복음주님의교회



회계 박영옥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회계 허민은 목사
순복음성산교회



부산지방회



회장 정기영 목사
순복음세움교회



부회장 김경옥 목사
순복음하늘소망교회



총무 김태주 목사
순복음부산우리교회



서기 조옥금 목사
순복음빛교회



저무 김연옥 목사
영광한성교회



회계 서희순 목사
순복음비전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광주지방회



회장 최창식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부회장 이명 목사
순복음한국교회



총무 조은주 목사
순복음장흥교회



서기 조국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재무 박우진 목사
은혜교회



회계 배영목 목사
순복음열린교회

전북지방회



회장 유경영 목사
순복음종은나루교회



총무 최광욱 목사
순복음제일교회



서기 이경호 목사
합리순복음교회



회계 박종석 목사
별墅전원교회

전북서지방회



회장 박상규 목사
정읍순복음중앙교회



1부회장 양경석 목사
은혜성교회



2부회장 심현 목사
임마누엘수업관



총무 양희철 목사
정복순복음교회



서기 김경배 목사
꿈이있는교회



재무·회계 박윤석 목사
순복음심원교회

전라지방회



회장 백영자 목사
복음순복음교회



총무 유국 목사
순복음광안교회



서기 이태우 목사
새여수해와진리교회

호남지방회



회장 서베드로 목사
목포시내성교회



부회장 정복 목사
순복음등산교회



총무 전경 목사
장계순복음교회



서기 홍경희 목사
순복음예전교회



회계 민순복 목사
새생명교회

제주지방회



회장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총무 안재홍 목사
순복음만남교회

총회지속지방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0, 11)

대한민국축구선교회 계남중학교선수들에게...2018프로축구선수초청 재능기부



박에녹 목사
대표



김순누 목사
사무총장

대한민국축구선교회(대표 박에녹 목사, 사무총장 김순누 목사)는 지난 12월 6일(목) 부천 옥길전지구장에서 부천시축구협회와 엘리트학교 후원으로 계남중학교 축구 꿈나무들과 2018 프로축구선수초청 재능기부를 개최했다.

올 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첫회 때부터 참석해 온 김진욱(선수총무/전북현대)을 비롯해 강상우(포항스틸러스), 서경주(이랜드FC), 김원식(FC서울), 김동석(인천유나이티드), 문기환(부천FC), 김예성(대전시티즌), 김성열(경주FC), 유청인(안산FC), 김정남(전 축구국가대표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2012년 천안초축구부(한승현 감독)를 시작으로 예선중축구부(전현석 감독), 안성중축구부(권태석 감독)로 이어지게 된 본 재능기부 행사는 열악한 축구부 한

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축구꿈나무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취지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특별히 2013년 예선중축구부에서는 후원회가 공식출범해 실질적인 후원의 기틀이 마련되는 좋은 계기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안성중축구부에서도 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축구선교회 박에녹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이상목 계남중학교 교장의 축사, 전 축구국가대표 김진욱 감독과 부천시 축구협회 김영태 회장의 격려사, 이상목 교장에게 명예감독 위촉장 수여, 재능기부 참여자 소개 및 광고,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곧바로 부천 계남중학교 축구 선수들과 코스별 훈련을 실시한 후 친선경기를 하고 프로선수들과 대화시간을 갖고 축구 꿈나무들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북돋워 주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관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재능기부행사를 계기로 후원회조직 및 후원회운영인프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면 아울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운영되는 우리 나라 학원축구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비꿀 수 있는 기록제 역할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CTS기독교TV 창사 23주년 기념 감사예배

동역해주신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1995년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개국한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올해 창사 23주년을 맞았다. 이에 지난 11월 30일 서울 노량진동 CTS아트홀에서 <CTS 창사 2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열렸다.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유일하게 44개 공교단이 연합해 세운 CTS를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마련된 감사예배에는 CTS 초대공동대표이사 김선도 감독과 CTS공동대표이사 전영구 감독회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윤성원 총회장, CTS법인이사 최우식 목사와 김애자 목사, 김경오 장로를 비롯해 대한에수교장로회 예정총회, 예정합동(총신측) 등 각 교단 대표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CTS 감경철 회장은 감사의 말씀을 통해 “어느덧 23년을 앞두고 있는 CTS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다”며 “매일 아침 경건예배를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모든 임직원들이 CTS기독교TV를 위해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성도님들과 한국교회에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2020년에 25주년을 맞이하는 CTS가 25주년에는 CTS기독교TV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복음전파를 위한 글로벌 영상 선교 사역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한 CTS 공동대표이사 전영구 감독(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감독회장)은 “순수복음방송 CTS가 23주년을 맞이하는 기쁜 날”이라고 인사하고, “모든 일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도하고, 23년 동안 CTS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 놀라운 성리 속에 큰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길 믿는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윤성원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23년 전 CTS기독교TV가 출발한 기쁜 날”이라며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경역자를 세우시고 헌신적인 직원들을 보내셔서 돕는 동지들과 함께 일하셨다”고 말했다. 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CTS를 중심으로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에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되는데 CTS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크맥클랜던(동남아시아 CBN대표)은 “우리는 슈퍼복과 함께 CTS와 사역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전 세계에서 더욱 많은 열매가 맺어지길 기도한다”고 말

했다.

아울러 CTS는 지난 10년간 CTS 영상선교 사역에 헌신해온 임직원 5명에게 “장기근속자 근속패”를 전달했다.

CTS는 방송통신위원회 채널역량평가와 Skylife 방송채널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에 선정되고, Skylife HD방송을 송출하고 24시간 방송 종교채널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종교방송, 기독교미디어의 이름에 걸 맞는 행보를 걸어왔다. 또 간증 프로그램 <내가 매일 기쁘게>, 섬김과 나눔을 위한 새로운 방송 포맷의 장을 개척한 <7000 미라클>, 기독교계 최초의 매일 60분 생방송 보도 프로그램 <CTS 뉴스> 등을 통해 한국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한국교회와 소통해 왔다.

케냐 여아 응원 팔찌 만들기 캠페인

월드비전,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과 함께 진행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작가 이동진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 여아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팔찌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월드비전 여아 기본권리 보호 캠페인인 ‘베이직 포 걸스(Basic for Girls)’의 일환으로, 인기 웹툰과의 협업으로 대중에게 전 세계 여아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가자들이 직접 팔찌를 만들어 해외에 보내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으로 기획해 대중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월드비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트루프 광장에 캠페인 부스를 설치하고 응원 팔찌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이 만든 팔찌는 케냐 양구라이 지역에 위치한 카카펠(Kakapel) 학교 전교생(782명)에게 전달되며 월드비전은 아이들에게 팔찌가 전달되는 모습을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전달 예정이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케냐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이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제적인 조혼과 교육차별 등 불행들을 겪고 있다”며 “케냐 소녀들을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개발도상국에서는 많은 여아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매일 3만 6천 명의 18세 미만 여아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결혼해 교육을 포기하고 있고, 탄자니아 청소년 5명 중 1명은 등굣길 혹은 학교에서 성폭력을 경험했다.

또한, 케냐 여성 중 65%가 깨끗한 생리대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6천 6백만 명의 여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월드비전은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성별에 상관없이 삶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폭력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며 베이직 포 걸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자신의 언어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창조교회, 성서공회에 미얀마성경 5천부 후원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가 창조교회(홍기영 목사)의 후원으로 미얀마에 조진 성경 5,000부를 보내는 성경 기증식을 지난 11월 29일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에서 가졌다.

창조교회는 2015년 쿠바에 큰 글자 스페인어 성경 5,200부를 기증한 데 이어 이번에도 미얀마 조진 부족을 위한 구약성경 번역과 제작을 후원했으며, 조진

부족의 구약번역 프로젝트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중단되었지만 창조교회의 후원으로 번역을 재개하여 제작이 완료되었다.

뿌리 깊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태국과 인도 등을 접하는 국경지역에 사는 소수부족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다.

미얀마에는 현재 약 135개의 소수부족이 있으며, 200여 개의 부족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미얀마성서공회는 소수부족들을 위한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증식에서 홍기영 목사는 ‘말씀에 담긴 부흥의 8:8~12’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언어도 시간이 지나 잘 안 쓰이면 말씀을 읽을 때 의미가 희미해지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국어로 된 성경을 통해 미얀마 조진 부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의 부흥이 일어나 살아난 것처럼, 오늘 미얀마 조진 부족 사람들 도 말씀을 읽고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소망합니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기증하는 성경은 12월 11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25일 성탄절 즈음에 태국 치앙마이에 도착한다.



성경과 인문사회학의 만남

생명나무숲아카데미 개설



생명나무숲아카데미 대표

생명나무숲교회(담임 장현일 목사)는 한국공정정책개발연구원과 함께 성경과 인문사회학이 만나 삶의 예배자로 세상과 소통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삶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세우기 위해 생명나무숲아카데미(LTFA)를 12월 대입전 기간 동안 매 주일 오후 1시에 비포구 신수동 생명나무숲교회에서 개설한다.

복음통일시대를 열어가고자 영성과 전문성 그리고 좋은 품성을 갖춘 다음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생명나무숲교회는 지역 교회와 함께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 말씀목상과 적용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 관점에서 인문사회학적 시선을 갖추고 성경적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소통하는 신실한 크리스

천을 세워가고자하는 취지로 아카데미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12월 2일은 세바시를 통해 잘 알려진 조병준 대표(준 파자)의 “청년창업 기록의 힘”과 9일은 감자탕이야기와 행복한 로마 읽기의 저자 양병무 박사(한국다서학회)의 “시대의 사명과 크리스찬 리더십” 16일은 크리스천 코칭으로 잘 알려진 이현주 코치(국제코칭협회)의 “나는 누구인가?”란 주제로 말씀과 함께 신앙의 관점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조명한다.

장현일 목사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전인적인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예배자를 세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 회복으로 힘 없고 약한 우리 이웃을 섬기며 우는자와 함께 우는(롬 12:15)성도와 교회공동체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홈페이지: www.agtc.or.kr

AG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1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2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3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G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웨슬레회 35차 정총 성료

웨슬레성서대학 · 여선교부 신설예정



예수교대한웨슬레회(총회장 정동석 목사) 제35차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왕십리 소재 삼정교회에서 열려 사역자 및 북음전도자 양성을 위해 웨슬레성서대학을 설립 계획 등 제35차 사업계획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총회는 부총회장 서영민 목사의 사회로 총대원 보고, 개회선언, 지역교회별 보고에 이어 회계보고를 유인물 대로 받은 후 임원선거에 들어가 35차 총회를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했다. 부총회장 서영민 목사는 보고를 통해 “교단 산하 교회별로 지역전도, 한국컴패션(대표 서정인 목사)과 연계해 북한선교 방송·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금년 한해 국내외 선교에 전력했다.”고 밝혔다.

총회는 임원선출에 있어서 교단발전을 위해 임원진을 강화하기로 하고 부총회장을 1인에서 2인으로, 평신도위원을 1인에서 2인으로 보강해 선출하는 한편 새롭

게 교단 여선교부도 신설해 국내외 선교에 대비하기로 했다.

총회는 이어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첫 번째 사업으로 교역자들을 위한 세미나와 평신도들을 위한 세미나를 전·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고 그밖에 영적 함양을 위한 집회, 교단활동 수련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회부처리에 앞선 개회예배에서 부총회장 서영민 목사는 사 60: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질 그릇 안에 보배”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총회장 정동석 목사 △부총회장 서영민·오도경 목사 △총무 김재형 목사 △서기 최중무 △회계 박희애 △교육부장 이재성 △봉사부장 박남수 △전도부장 유장수 △평신도위원 허금옥·신동명

WBH ‘월드킵공원과 함께하는 가을나눔’

〈제4회 월드킵공원의 가을나눔〉행사가 지난 11월 24일 오후 2시 마포구 월드킵공원 내 노을여가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제부티구조개발 NGO 씨월드부티웬츠(WBH 이사장 장현일, 회장 최에스터 신한대학교 부티웬츠사 이언스학부 교수)는 작년에 이어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청춘사진 촬영을 위한 헤어, 메이크업 등의 뷰티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월드부티웬츠는 “이러한 K-뷰티서비스를 평생 처음

경험한 어르신들의 환한 모습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사진봉사단체인 바라봄과 함께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아 즉석에서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사)월드부티웬츠 장현일 이사장(한국 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최에스터 회장, 장민혁 사무총장과 안은미 뷰티서비스단원 등을 비롯한 홀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일일 주민돌봄 봉사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군자교 이레교회(정향길 목사 시무)에서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 전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리면 부흥과 성장을 꿈꾸고 있기에 전도에 관심이 없는 목회자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 에본교회에서도 사탕전도, 김밥이나 달걀전도 등을 해보았지만 전도는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세트 전도를 하는 박영수 목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전도 방법 강의를 듣고 점심 식사 후에 그 식당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였는데, 그 시작이 쉽고 또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순한 양들처럼 전도를 받는 모습이 매우 경이로웠습니다. 한 시간 정도의 전도 현장에서 12명 이상이 이름을 밝히고 생년월일에 주소에 전화 번호, 가족을 이력까지 밝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기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박영수 목사는 저희 에본교회에서도 가족세트 전도 집회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너무 전도하기를 소망하는 사모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하여 놓고도 마음의 갈등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영적 싸움이었으며 사단의 영이 가족세트 전도 집회를 하지 못할 핑계거리를 찾게 하였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패배주의에 잡힌 것 같은 스스로를 보았습니다. 전도 집회에 참여할 만한 건강이 나사간이 허락지 않았고, 또 시간을 워낙 촉박하게 잡은 연고로 많이 알리지도 못하였습니다.

전도 집회 당일이 되었고 박영수 목사가 왔는데, 감사하게도 몇 명의 전도 동역자들이 함께 참여해 주었으며, 저희 교회에서는 두분의 권사가 참여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성화는 시작되었고, 가족세트 전도를 위한 말씀선포와 간단한 비디오 교육을 마치고, 저녁 현장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초겨울 밤 전

도가 될까? 의심스러워하는 우리를 대동하고 박 목사는 아간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영접기도 훈련을 받은 대로 전도는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묻고 답하는 일은 일시전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도지만 주변 받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전도응답도 유익하여야만 받던 자들이 순순히 영접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에 우산을 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게에 들어가 영접시킨 후에 이력을 받고 담임인 저에게 축복기도를 하게하고, 교회를 붙이는 일까지 이루어진 과정은 압권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 전도 집회를 개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박 목사의 “전도는 안하는 것이 실패한 것”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전도하리라 다짐하여봅니다.

나의 주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박 목사와 손을 맞잡고 기도하여 전도의 능력을 제게도 부여달라 기도하였으니 전도의 영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박 목사의 가족세트전도사역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하며, 한국교회와 교회의 부흥성장을 원하는 모든 동역하는 목회자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에본교회에서 박영수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회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초대시

이제인 창로 // 은혜와진리교회



나를 비우게 하소서

기다리라.
멈추라.
잠잠하라.
주라.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가슴을 열고 사랑으로 듣게 하시고,
겸손으로, 소망으로, 섬김으로 나를 비우게 하소서.

받아들고 감사하기보다는 약속 주심을 감사하고,
잃은 것보다 얻은 것 더 기억나게 하시고
비우고, 버릴 때 주님의 것으로 채우소서
기도하는 기쁨이 본업이 되게 하시고
살아서역사하시는 말씀에 의지하는 습관을 주옵소서.

그래도 매일 죽지 못하는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 뜨고도 보지 못한 저에게
두 귀 가지고 듣지 못한 저에게
원망 불평이 식사보다 많았고
나보다 남이 더 많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내가 한 것이 전부였던 저에게
하나님 명하시니 잠에서 깨나이다

잠잠히 주만 바라보나이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 ✪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어와 500ml 30개 들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전국여교역자국 2018년 송년예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요 3:21)

마지막 때 이단 사이비 난무, 성경대로의 바른 복음전파 위해 전력 다짐



사회
한순남 목사
여교역자국장

전국여교역자국(국장 한순남 목사)에서는 지난 12월 10일(월) 오후 1시 일산벤엘교회(담임 조영란 목사)에서 2018년 송년모임을 갖고 마지막 때를 지내며 WCC를 비롯 성경을 왜곡하는 가톨릭과 이단 사이비가 횡행하는 이때 하나님 말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결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일산벤엘교회 찬양팀의 찬양인 도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교역자국장 한순남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차장 김바울 목사의 대표기도, 에이레네선교단(대림벤엘교회)의 특별공연, 여교역자국 고문 정부용 목사(대림벤엘교회 당회

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단 2:31-36 말씀을 본론으로 ‘구약과 신약의 일치하는 종말론’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스스로 자신을 보혜사, 구원자, 재림주라고 일컫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릇된 신앙을 전하는 WCC 등 이단 사이비집단이 횡행하는 마지막 때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말씀대로의 복음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정 목사는 또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오직 한길로 나아가는 진실된 교단에 속해 있음을 감사드리고 더욱 진실한 주의 종이 될 것과 지도자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된 지도자 성경적 지도자, 성경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설교에 이어 회원들은 ‘나리와 민족을 위해’, ‘교단의 발전과 연합을 위해’, ‘여교역자국 연합과 성령충만을 위해’ 김순자 목사, 최정희 목사, 탁정신 목사가 각각 주제를 기도했다.

이어 안선자 목사의 헌금기도, 배세진 사모의 헌금찬양, 여교역자국장 한순남 목사의 광고를 통해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고문 정부용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회원들은 예배 전 일산벤엘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으며 송년감사예배 후에는 일산 워브터 체니스 복합상가에 있는 볼링장으로 옮겨 각 지방회별로 볼링대회를 갖고 볼링 실력을 떠나 함께 어우러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것은 돌아보아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더욱 알찬 새로운 한해를 맞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다짐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알찬 새해를 열어가기 위해 한 마음 되어 기도했다.



설교
정부용 목사
고문



대표기도
김바울 목사
차장



제주기도
탁정신 목사
중경국장



제주기도
김순자 목사
홍보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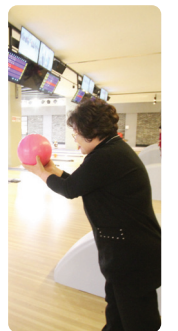
제주기도
최정희 목사
예배부장



헌금기도
안선자 목사
정보부장



대림벤엘교회 에이레네 선교단의 특별 공연



일산벤엘교회 찬양팀

볼링 1등상 수상

볼링 2등상 수상

합심기도

성명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에이즈 감염 급증

에이즈 감염경로 남성 간 성접촉 적극 알려 감염률 낮춰야

12월 1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에이즈의 날'이다. 최근 의학이 발전하여 HIV/AIDS 바이러스의 에이즈 발병을 최대한 늦추고 있지만 에이즈는 여전히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확산위험을 인식시키기 위한 날이다.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감염이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저러나는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에이즈에 대한 대책은 편향된 인권에 사로잡혀 매우 소극적이며, 제한적인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은 지극히 간단하다. 일반 국민들에게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를 적극 밝혀서 에이즈 감염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에서 이미 밝혔고, 또 최근 에이즈 코호트 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는 남성 간 성접촉이다. 남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라는 것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 많은 선진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일부 언론들은 에이즈 감염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또 감염자들의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감염경로를 밝히면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동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라는 것을 밝힐수록 동성 간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검사를 기피해서 오히려 에이즈 감염이 더욱 확산된다고 주장한다. 한결을 더 나아가서 동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라고 알리는 사람들 때문에 최근 HIV 감염인이 증가되었다는 주장까지 한다.

한국에서의 에이즈 검사는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 검사에 비해 동성 간 성접촉의 위험성을 알릴수록 동성 간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검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위험함을 알수록 조심하고 더 수시로 검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동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를 알렸기에 최근 HIV 감염인이 증가되었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질병의 감염 경로를 알리면 더 질병이 퍼지고, 감염 경로를 알리지 않아야 질병이 퍼지지 않는다는 괴상한 주장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동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 감염 경로를 알리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확산을 부추킨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

김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국가에서 "에이즈는 위험한 질병인 것은 맞지만 콘돔을 사용하면 전염

을 막을 수 있는 병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콘돔 사용률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콘돔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서 문제라고 답변하였다. 에이즈 감염을 막는 책임을 가진 질병관리본부의 정말 한심한 답변과 대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에이즈의 감염경로를 밝히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알려야 하는 내용이다. 지금도 청소년들이 남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임을 모르고 감염되는데 이 사실을 널리 알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알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을 보면 너무 답답하다.

에이즈 감염자들에게 콘돔을 착용하라고 홍보하는 수준의 대책에 머물러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대책을 지금이라도 수정하여 일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저러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에이즈 감염 경로가 남성 간 성접촉이라는 것을 적극 알리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 숫자가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반 국민들과 저러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에이즈 대책을 적극 요구한다.

2018. 12. 1
동성애 동성전 반대 국민연합

성명서

김정은의 대한민국 방문 ‘무조건 환영’ 못한다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한 대통령 취임 선서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 하시기 바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점은 참모들의 책임이 크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한민국 방문을 '무조건 환영' 못한다.

1.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2.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내에서 기독교 박해를 멈춰라.

3. 교계 일부 지도자들의 북한 관련 발언을 조심히라.

한국교회는 시대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는 (애스터의 기도)를 하라.

2018년 12월 4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연론회

국내외 성경 반포 사업 규모 계속 '감소'

대한성서공회의 성경 반포 사업 규모가 국내외 해외 모두 감소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성서공회가 지난 11월 27일 이사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성경전서(성경 66권 합본)의 경우 국내 반포는 2018년 52만 5,124부로, 지난 2017년 59만 4,344부에 비해 6만 9,220부 감소했다.

하지만 신약전서의 경우 국내 반포는 2017년 57만 7,688권에서 2018년 76만 232권으로 18만

2,544부 증가했다.

해외 반포의 경우 성경전서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2018년 490만 9,809부로, 2017년 510만 1,781부보다 19만 1,972부 감소했다.

신약전서 역시 2017년 73만 790권에서 2018년 50만 7,100권으로 22만 3,690권 감소했다. 권의현 사장은 "올해는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 미지립성서공회 성서 기증 사업을 시행한 지 10년

이 되는 해"라면서 "지난 10년 동안 100여 개 성서 공회에 총 285만 2,474부의 성서를 제작 기증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권 사장은 "개역개정판 성경은 올해 47만 2,436부 보급에 1998년 출간 이후 총 946만 722부나 갔다"면서 "그동안 국내 출판사들이 저작권 허락을 받아 출판한 주석성경 1,150만 1,009부를 포함하면, 총 2천 1백만 부 넘게 보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기도와 헌신 필요한 때

국방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후속 조치로 검토 중인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해병대가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해군도 NLL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 같은 군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후속 조치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은 6일 "해병대가 최근 서해 NLL 등의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해 작전상 우려되는 점이 많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해병대와 해군에 NLL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한 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10~40㎞의 비행금지지역을 설정했지만, NLL과 한강 하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이후 해상에 대한 추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추진하면서 "항후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과 연계해 북측과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내용은 조선일보 12월 7일자에 게재된 내용이다. 안보에 대한 정부의 막무가내식의 행동에 군 당국자들이 안보위협에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핵·미사일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상황이 여러 채널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지난달 딸 국가

정보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핵·미사일 활동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비핵화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고, 미·북 회담은 장기전에 돌입했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격이 한국 정부 요청 이후에 중단됐다고 지난달 밝혔다. 2004년 시작된 '폭격기 지속 배치(CBP)' 임무는 계속되고 있으나, 한국을 제외한 일본·호주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미 폭격기는 '북한의 트라우마' 일 정도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인데, 한국이 막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한·미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설사 미국이 폭격기의 한반도 출격을 중단하려 했어도 한국이 반대했어야 했다. 북핵은 그대로인데, 자체 안보 태세도 미국의 안보 우산도 허물고 있다. 국제적인 안보협력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기이한 행보가 계속되는 한 안보공백은 볼 보듯 뻔하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몇 배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헌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지금 경남 지역 시민 단체와 학부모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남 창원에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시민들 2천여 명이 모여, 그 문제점과 반대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여론조사 기관 '공정'에서는 경남 지역에 사는 만 19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였다.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사람은 25.2%에 불과했으나, 반대는 두 배가 넘는 52.5%에 달하였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란 응답자가 26.9%, '학습 분위기가 좋아져서 성적이 하락할 것'이란 응답이 33.3%로, 부정적 응답이 60.2%를 차지하였다.

그런데도 경남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하는가? 주민 대다수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강행하는 것은 독재 시대의 산물이다. 더군다나 교육을 담당한 교육청이 지역의 학부모들과 도민들의 반대에도 이를 강행한다면, 이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 못지않게, 교사들의 '교권 침해'와 교육 현장이 무너지므로 학생들이 받는 '학습권 침해'이다. 교육청이 학생들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주민과 교육 당국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시도보다,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는 인성과, 보편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불가분성인 '원부인권'의 교육과 그 보호를 위하여 힘써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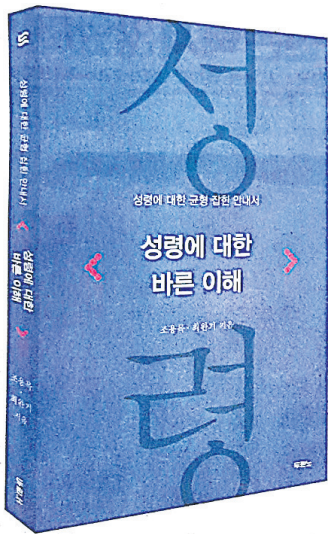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여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최완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교회 실행위원이다.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원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년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제4회 실행위원회

일시 2019년 1월 7일(월) 오전 11시(시무예배 및 신년하례)
(12시 점심식사, 13시 실행위원 회의)

장소 총회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02)2675-5181~3

참석 실행위원(정책위원, 총회임원, 지방회장), 각 위원장, 각 국장, 증경지방회장

※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12월 21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임웅재
총무 목사 신재영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학년도 총회신학교·목대원·사이버신학연구원 졸업예배

(총회신학교 제8회, 총회목회대학원 제11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제2회)



2017학년도 졸업식 광경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총회신학교·목대원·사이버신학연구원 학사일정에 따라 2018학년도 졸업식을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함께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8년 12월 17일(월) 오후 2시

·장소: 총회본부 5층 대성전

·참석대상: 총회신학교, 총회목회대학원·사이버신학연구원 졸업 대상자

·참고: 1) 졸업 대상자는 졸업식 당일 오전 9시까지 도착(예행 연습)

2) 졸업가운 수령은 졸업식 당일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도착바랍니다.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회신학교·목회대학원·사이버신학연구원

http://agpgs.aogk.org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장장서 1부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장장서) 1부
- 반영함판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원서교부: 수시 교부
- 원서교부처: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원서접수: 수시 접수
- 접수방법: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전 형 료: 50,000 원
-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

● 원서접수: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